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진현



지난 2월 14일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성토(?)하는 파업이 벌어졌다. 박물관 안내원이 '모나리자' 때문에 못살겠다며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하루 평균 6만 5천여 명의 입장객으로부터 '모나리자'를 지키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박물관 측의 특별보너스를 요구했다.

관객은 약 860만 명.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400만 명이 오직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미술관을 찾았다.

이쯤 되면 박물관의 '남바 1'이 아니라 프랑스의 '국보 1호'로 불릴만하다. 파리

광주의 '모나리자'는 없는가

에펠탑은 세계 최고의 컬렉션을 자랑하는 루브르 박물관과 연계해 매년 4천여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

빈센트 반 고흐를 배출한 네덜란드도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기는 마찬가지.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반 고흐 미술관과 오텔로르의 크롤러 필러 미술관은 반 고흐가 남긴 880여 점의 작품 중 절반 이상을 소장하고 있다.

루브르 관람객 연 860만 명

40여 만점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루브르 박물관이 '모나리자'를 수퍼 올트라급 VIP로 떠받드는 이유는 단 하나. 박물관을 먹여 살리는, 보물 중의 보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루브르를 다녀간 관

람객은 약 860만 명.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400만 명이 오직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미술관을 찾았다.

이쯤 되면 박물관의 '남바 1'이 아니라 프랑스의 '국보 1호'로 불릴만하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과 연계해 매년 4천여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

빈센트 반 고흐를 배출한 네덜란드도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기는 마찬가지.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반 고흐 미술관과 오텔로르의 크롤러 필러 미술관은 반 고흐가 남긴 880여 점의 작품 중 절반 이상을 소장하고 있다.

'별이 빛나는 밤'(뉴욕현대미술관 소장) 등 나머지 절반이 외국의 미술관에 흩어져 있거나 개인 컬렉터들이 1~2점씩 소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지난 90

작가들의 컬렉션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도 그런 연유다. 이들에게 있어 컬렉션은 유품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자원이자 문화자산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방향 광주의 컬렉션은 어떤 모습일까? 유럽스럽게도 외국인은 고사하고 광주 시민들에게도 어필하지 못할 만큼 초라하다.

추상회화의 선구자인 수학 김환기(1913~1972) 화백의 출생지인 신안과 한국 화단의 거목 천경자(82) 화백의 고향 고흥에는 이들의 예술적 체취를 느낄 수 있는 흔적이 없다. 한국적 인상주의를

개척한 오지호(1905~1982) 화백의 태자리 화순 동복엔 '오지호 미술관'이 있기는 하나, 대표작은 고사하고 진품 한 점 없어 늘 썰렁하다. 이렇다 보니 이들 출향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려면 고향이 아닌, 서울이나 과천으로 원정관람을 가야 한다.

양질의 컬렉션은 문화자산

게다가 이 지역의 핵심 문화 인프라인 광주시립미술관은 정체성 없는 컬렉션으로 시민들을 끌어 모으는 데 한계를 드러낸지 오래다. 또한 매년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는 광주 비엔날레의 경우 수많은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다녀갔지만 연중 감상할 수 있는 이들의 작품 1점 남기지 않아 '밀빠진 독'이라는 논총을 받고 있다.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지역에 키워낸 거장들의 컬렉션을 살려주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같은 컬렉션이 현실화될 때 광주는 앞으로 지어질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더불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도시로 자리 잡을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루브르 박물관 안내원들이 모나리자 때문에 못살겠다고 파업한 것처럼 머지않아 광주에서도 밀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행복할 비명을 지르게 될지...

〈문화생활부장〉

시설

구멍뚫린 민생치안 불안에 떠는 광주시민

광주의 민생치안이 흔들리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강·절도는 물론 살인과 납치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해 연말 이후 무려 13건이나 연쇄적으로 발생한 노래방 강도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17일 광주 남구에서는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또 15일에는 서구에서 2인조 강도가 20대 여인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지난달 31일과 26일에도 남구와 동구에서 납치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에다 주택가에는 전문털이범이 판을 치고 있고, 급기야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소화전 내 황동 노즐(관중) 절도사건까지 일어났다. 사정이 이쯤 되면 민생치안은 실종된 셈이다.

노래방 강도사건만 해도 그렇다. 경찰은 특진까지 내걸며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4개월이 지나도

범인 유격조차 잡지 못하는 등 수사는 답보상태다. 범죄는 점차 치밀하고 흉포화해지고 있는데 비해 경찰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소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범죄를 막지 못하면 사회불안은 가중된다. 특히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면 경찰의 치안력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물론 경찰이 민생치안에 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없다면 경찰의 치안력은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범죄에 대한 예방 치안을 강화하고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 줘야 한다.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범죄, 기는 경찰'이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노무현 기념관' 임기중 건립 불성사남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 인제대에 '노무현 기념관'이 건립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인제대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학교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정책적 성과를 기념하고 각종 기록물 등을 전시한다는 것이다.

기록문화가 부실한 우리의 현실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각종 기록과 역사적 사료 등을 정리·전시하는 기념관은 활성화해야 한다. 긍정적 역사는 물론 잘못된 역사까지 보존해 후대의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김대중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대통령 기념관 하나 없는 현실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은 대통령 기념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기념관이 없는 전직 대통령들도 대통령기록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기념관은 인제대에 '노무현 기념관'이 건립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인제대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학교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정책적 성과를 기념하고 각종 기록물 등을 전시한다는 것이다.

기록문화가 부실한 우리의 현실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각종 기록과 역사적 사료 등을 정리·전시하는 기념관은 활성화해야 한다. 긍정적 역사는 물론 잘못된 역사까지 보존해 후대의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김대중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대통령 기념관 하나 없는 현실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은 대통령 기념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기념관이 없는 전직 대통령들도 대통령기록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구두를 사러 나갔다. 신발을 사려면 오전이나 한낮보다 늦은 오후나 저녁에 가야한다는 건 상식. 해 지물럭 집을 나서 1시간 가까이 해매고 나서야 대충 맞는 신발을 고를 수 있었다.

나는 마음에 드는 신발을 신어 본 기력이 없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또래들 키보다 한 뼘은 작았건만 발 크기와 머리통만은 반에서 1.2등이었으니 별명도 자연 '발 큰 놈', '가분수'였다.

지금처럼 큰 운동화가 나오지 않았던 학창시절은 맞는 운동화가 없어, 신발 뒷 축을 구부러 신고 다녀야 했다. 등교 시간이면 교문에서 두발이며 복장을 출입관리사무소처럼 점검하던 그 시절

구두를 고르며

에도, 나는 구부러 신은 신발을 끝까지 유일의 교실로 향하곤 했다. 보기 싫은 것도 어느 정도 참다 못한 선생님들은 나를 비롯한 두 명의 발 큰 녀석들에게 구두를 맞춰 신이라 명하였다.

3천원이면 새 운동화를 사 신던 시절, 2만원을 부르는 제화점 아저씨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예의를 인정받는 것은 언제나 즐겁고 신나는 일이었다.

"검정색 교복바지에는 운동화보다는 구두가 어울릴 거야"

그러나 1주일일 기다려 구두가게에 들른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크고 멋드러진 구두대신 내 발에 맞춘 구두는 옆으로 평평피한테다 발등은 왜 그리 높은지 내가 그러던 유리구두가 아니었던 것이다.

20여 년이 흘렀지만 지금에도 구두

는 역시 나와 궁합이 맞지 않는 물건이 가보다.

지난 가을엔 잘 나가는 CEO들이 즐겨 신는다는 세련된 문양이 새겨진 검정구두가 마음에 드는 것이었다. "멋있긴 한데 넓이가 좀아도 괜찮을까요?" "구두는 신다 보면 늘어나니까 마음에 드시면 한 번 신어보세요" 유일한 절원은 손님이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물건을 구입할 사람인지, 어떤 상품을 고를지 알아 맞출 수 있다 한다.

하루면 수십 명을 맞이하는 그 점원은 내가 맞지 않는 그 구두를 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으리라. 보기 좋고 멋드러지나 내 발에 맞지 않았던 그 CEO구두는 한 달이 지나고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운전자 삼각대와 함께 불꽃 신호봉 휴대 의무화해야

자동차 트렁크에 안전삼각대를 가지고 다닌다. 법 규정에도 안전삼각대의 휴대를 운전자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설치해 놓은 안전삼각대가 강한 바람, 대형 덤프트럭의 고속 주행으로 인해 그대로 날라가 버린 것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 삼각대 뿐만 아니라 주·야간 점멸 경고등의 작동이 가능하고 풍속에도 지탱할 수 있는, 불꽃 신호봉을 설치해야 한다.

또 안전삼각대 외에 불꽃 신호봉도 휴대 의무화해야 한다.

▲김옥익·순천시 인제동

▲김옥익·순천시 인제동

기고

이병열



광주는 민주성지, 의향도시, 인권도시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그 애칭에는 특징과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이 함축되어 있다.

광주에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과 1960년 광주 4·19혁명,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의 3대역사가 있다. 광주3대 역사는 불의에 항거한 민중항쟁으로 각 역사를 면면이 살펴보면 송고한 애국애족의 광주정신이 계승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 4·19혁명은 어느 정당이나 단체 어느 누구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광주 4·19혁명은 당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경찰과 교사가 막고있는

혁명 주역으로서 안타깝고 한탄스럽다. 광주시민헌장에 광주4·19혁명문구는 제외되어 있다. 광주광역시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광주시의 역사라 할 수 있는 시정백서에서 4·19역사는 찾아볼 수 없다. 구도청 앞 옛 삼무터에 있는 민주의 종은 광주가 민주성지임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광주4·19혁명의 역사는 조각이 없다. 광주시를 누비고 다니도 4·19유적지, 기념물, 상징물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것이 광주4·19 역사 관리의 현주소다.

혹자는 광주4·19혁명을 광주의 독자적인 역사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며 평가 절하는 사람이 있다.

광주정신 계승에 4·19역사는 허리역

광주의 4·19 그 빛나는 역사를 아십니까

교문을 박차고 뛰쳐나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광주상고·광주공고·조대부고, 전남여고,광주여고등 시내 각 고등학교로 달려가 혁명에 동참할 것을 목이 터지도록 외치면서 시내 곳곳에 혁명의 불씨를 뿌렸고 오후에는 광주 시내 전 지역에서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다.

혁명의 시위대와 저지하는 경찰과 총 돌로 7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광주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 발전에 초석이 되어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긋기도 했다.

이러한 광주4·19역사가 존재함에도 상당수의 광주시민은 광주4·19역사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으며 4·19역사를 알고있는 일부지역민조차 광주4·19역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 관계기관에서조차 광주역사 속에서 4·19역사를 제외하고 있음은 광주4·19

활을 하고 있다.

만일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광주4·19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광주를 어떻게 평가 하겠는가? 민주성지, 인권도시, 의향도시라 할 수 있겠는가?

또 광주4·19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4·19역사를 기릴 수 있는 유적지(도로 광장 공원등)와 기념물, 상징물이 많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눈에 띄어 보고 생각하고 느끼게 하여야 한다.

광주의 관계기관에서도 보다 깊은 통찰력으로 광주의 역사를 보존 관리하여 광주위상을 드높여 주기 바란다.

광주의 3대역사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 문화중심도시에서 빛을 발할 때 광주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속의 광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광주4·19혁명기념사업위원회장〉

아파트 단지내 불법세차 제재할 조례 만들자

아파트 단지내에서 1주일일 한번씩 세차를 하는 주민이 있다.

비누칠에 세척제까지 사용하고 하얀 거품을 내가면서 샤워식으로 세차해 아파트 정원 바닥이 하얀 거품으로 뒤덮였다. 거품은 세척물과 함께 하수구로 흘러들어가었다.

수질오염도 되고 바닥의 물 때문에 아스팔트의 움푹 패인 곳에 물이 고여 질척거리니 다른 입주자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참다 못해 은근히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했더니 태연하게 "자동 세차하면 차가 긁혀서 안된다"고 했다.

어이가 없었다. 자기 차에 흙집 생기는 건 안되고 아파트가 지지분해되거나 수질오염 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참 놀라웠다. 그렇다면 손 세차장을 이용하면 되지 않나.

내가 사는 곳만 이러한 지 다른 아파트도 이같은 일이 일어나는 지 모르겠다.

광주시가 아파트 단지내 불법세차에 대해 입주자 대표에게 제재 권한과 함께 고발권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으면 한다.

저녁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최소한의 기본 질서 의식은 가지고 싶으면 좋겠다.

▲이미경·광주시 북구 대령동

無 等 鼓

우리나라 문헌상 처음 나오는 술 이야기는 고려 때 이승휴가 지은 역사책 제왕운기에서다. '하백의 딸 유화가 해모수의 피에 속아 술에 만취한 후 해모수가 아이를 잉태하였는데 그가 주몽이라는 이야기'이다.

막걸리는 고려 때부터 문헌에 등장한다. 이태종이 시에 '뚝배기 질그릇에 허연 막걸리'라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막걸리 이미지는 예나 지금이나 서민의 술 그 자체였던 모양이다. 곡주가 익어 청주와 술지킴이를 나누기 이전에 막 걸른 술이라 해서 막걸리다.

할머니들이 나서 통 사정해줬지만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았다. 그만큼 막걸리는 시골에서 대·소사를 치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유물이었고, 뱃신이 필요했던 농부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곤 했다.

최근 이런 막걸리에도 특허 불이 일고 있다고 한다. 얼음막걸리, 생막걸리, 퓨전막걸리 등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재개발한 막걸리 관련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고 한다.

막걸리 특허



특허청이 지난해 주류 관련 특허출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중음주 소주, 맥주 출원이 11건인데 비해 전통주가 38건이었다. 특히 막걸리 관련 출원이 17건에 달하는 등 전통주와 막걸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

다. 원재료도 한약재나 과일류, 버섯, 해산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시장 개방으로 주정원료나 주류 수입이 증가하면서 관련 업계 사정도 더욱 어려워졌다. 우리의 막걸리가 세계 명품으로 술단지를 머리에 이고 가넷가에 쏟아붓거나, 나뭇단에 감추었다.

하지만 단속반에 걸리기 일주였고,

대주머니들이 나서 통 사정해줬지만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았다. 그만큼 막걸리는 시골에서 대·소사를 치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유물이었고, 뱃신이 필요했던 농부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곤 했다.

최근 이런 막걸리에도 특허 불이 일고 있다고 한다. 얼음막걸리, 생막걸리, 퓨전막걸리 등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재개발한 막걸리 관련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고 한다.

특허청이 지난해 주류 관련 특허출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중음주 소주, 맥주 출원이 11건인데 비해 전통주가 38건이었다. 특히 막걸리 관련 출원이 17건에 달하는 등 전통주와 막걸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

다. 원재료도 한약재나 과일류, 버섯, 해산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시장 개방으로 주정원료나 주류 수입이 증가하면서 관련 업계 사정도 더욱 어려워졌다. 우리의 막걸리가 세계 명품으로 술단지를 머리에 이고 가넷가에 쏟아붓거나, 나뭇단에 감추었다.

하지만 단속반에 걸리기 일주였고,

대주머니들이 나서 통 사정해줬지만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았다. 그만큼 막걸리는 시골에서 대·소사를 치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유물이었고, 뱃신이 필요했던 농부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곤 했다.

최근 이런 막걸리에도 특허 불이 일고 있다고 한다. 얼음막걸리, 생막걸리, 퓨전막걸리 등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재개발한 막걸리 관련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고 한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편집인국내	사회 2부 2200-619	총 2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서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시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78)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